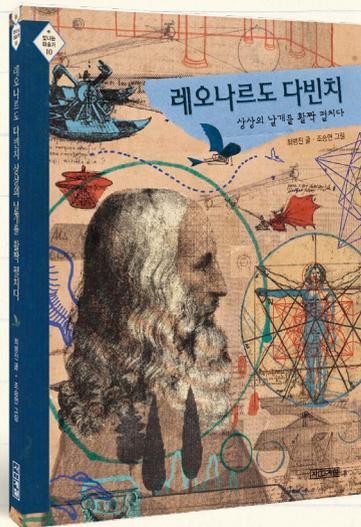


레오나르도 다빈치,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치다



최병진 글 | 조승연 그림 | 156쪽



옛 그림을 볼 때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나서 드는 느낌이 소중하다. 미술학자가 말하는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눈으로 봤을 때 드는 느낌, 그 느낌이 소중하고 그 느낌을 믿어야 한다. 사람들이 <모나 리자>를 보고, 리자가 '미소를 짓고 있다'고 하니까 막연하게 '그렇구나!' 하고 여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봤을 때 정말 빙긋 웃고 있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말이다. 집에 돋보기가 있다면 리자의 입을 확대해서 봐 보자. 자신의 두 눈으로 봤을 때 빙긋 웃고 있으면 웃는 것이고,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.



(학습 목표)

레오나르도의 작품은 모두 합해 봐야 스무 점 남짓밖에 안 된다. 이 가운데 그가 혼자 그렸거나 같이 그렸다 하더라도 그가 주로 그린 작품은 13점이고, 공동으로 그렸거나 공방 동료들과 같이 그린 작품이 7점이다. 또 그가 혼자 그렸다 하더라도 끝까지 완성한 작품은 11 작품밖에 되지 않는다. 루벤스 같은 화가는 수백 점을 그렸고, 피카소도 수천 점을 남겼다.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채 20점밖에 안 되는 작품을 남겼는데도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.

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걸려 있는 <모나 리자>는 세상에 있는 어떤 그림보다 유명하고,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인류의 자산이다. 2014년 영국의 한 언론 데일리메일이 <모나 리자>의 가치를 2조 5153억 원으로 계산한다. 또 어떤 미술 사학자는 40조 원으로 보고 있다. 한 해에 루브르박물관을 찾는 사람이 830만 명(2006년 기준)이고, 이들 가운데 85 퍼센트가 <모나 리자>를 보러 왔고, 입장료와 갖가지 수익 산업을 감안하면 40조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. 우리는 이 책에서 레오나르도의 몇 안 되는 작품을 공부할 것이다. 도대체 레오나르도의 작품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기에 그토록 '현대인'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?

- ◎ 레오나르도의 작품 <수태 고지>의 특징을 공부한다.
- ◎ 레오나르도의 그림 <담비를 안은 여인>에 담긴 뜻을 알아보자.
- ◎ 레오나르도가 그린 <최후의 만찬> 장면을 연극으로 꾸며 보자.

(독전 활동)

레오나르도의 <모나 리자> 공부하기

- 선생님은 <모나 리자> 이미지를 컬러 출력하거나 책 도록에서 오려 내 한두 장 준비한다. 책 도록에서 오릴 때는 B5 용지 절반은 넘어야 한다.
- 선생님은 네이버에서 <모나 리자> 원본 이미지를 구해 텔레비전으로 보여 준다.
- 아이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하나씩 말하게 한다. 물론 두세 가지를 말해도 된다. 선생님은 아이들이 말한 것을 칠판 한쪽에 간단히 정리한다.
- 7~8명까지는 전체 그림을 보여 주고, 그 다음부터는 가슴 위에서부터 머리 위까지만, 그다음은 그 아래 모습을 보여 준다.
- 아이들 다섯을 칠판 앞으로 나오게 한다. 리자가 '미소를 짓고' 있다고 하는데, 바로 그 '미소'를 한번 지어 보게 한다. 걸상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누구 웃음이 가장 '미소'에 가까운지 투표해 보자.
- 모나 리자 뒤의 배경은 좌우가 자연스럽지 않다. 레오나르도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. 선생님은 출력한 이미지나 도록을 오목하게 또는 우묵하게 접어서 이쪽저쪽에서 보게 하고 어떤 느낌이 나는지 말해 보게 하자.



<모나 리자>

▶ <모나 리자> 하면 보통 '모나 리자의 미소'를 떠올린다. 여기서 '미소(微笑 작을미·웃음소)'는 말 그대로 작은 웃음을 뜻하는 일본말이다. 이 말을 '미소(美笑 아름다울미·웃음소) 즉 '아름다운 웃음'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, 그런 뜻이 아니고 소리 없이 빙긋 웃는 웃음을 뜻한다. 그런데 <모나 리자>의 모델 리자의 입을 한번 보자. 이것을 정말 웃는 입으로 볼 수 있을까? 웃음을 머금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'미소를 짓고 있다'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. 아이들과 함께 '미소가 어떻게 웃는 것인지' 얘기해 본다.

(독후 활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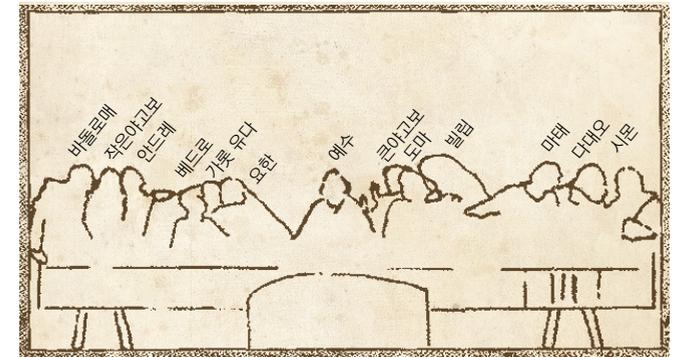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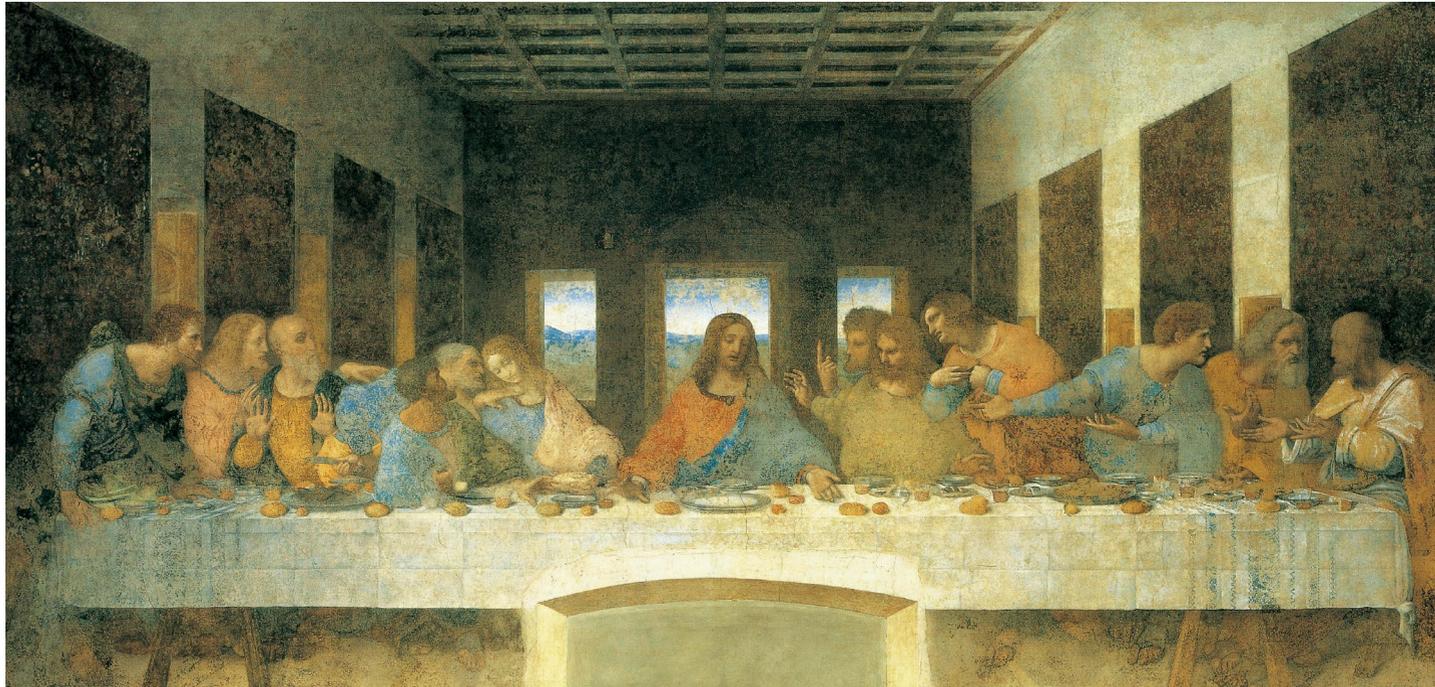
레오나르도의 <최후의 만찬> 공부하기

- 선생님은 네이버에서 <최후의 만찬> 이미지 원본 이미지를 구해 텔레비전으로 보여 준다. 레오나르도의 작품 상태가 안 좋으니 필립 드 샹페뉴가 그린 <최후의 만찬> 원본 이미지를 구해 유다가 오른손에 쥔 □돈주머니'를 보여 준다.
- 예수와 열두 제자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장면을 그린 <최후의 만찬>은 <성경> 네 군데에서 나온다. 이 내용을 책(83~86쪽)에서 찾아 읽어 준다.

→ 칠판 앞에 책상 열세 개를 일자로 붙인다. 선생님은 아이들 열셋을 나오게 해 저마다 역할을 정해 준다. 세숫대야를 준비하고, 책상에 접시를 놓고 간단한 음식과 과자를 차린다. 그런 다음 <성경>에 나온 대로 재현해 본다.

→ 한 아이는 이것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는다.

→ 예수를 가운데 놓고 네 그룹으로 나누어, 예수가 “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!” 폭탄선언을 했을 때, 네 그룹이 동시에 반응하는 장면을 재현해 보고, 그 다음 네 그룹이 차례대로 반응하는 장면을 재현해 본다.



<최후의 만찬>

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식당. 식당 벽에 원근감을 줘 커다란 공간을 만들었다. 창문 밖은 저녁이 아니라 대낮이다. 1625년 수도원에서 예수님 발 있는 곳에 문을 내 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이와 같은 모양이 되어 있다.